

『百聯抄解』평측자의 교육용 한자에서의 장단음

김영국*

<차 례>

1. 문제의 제기
2. 이본과 전거
3. 措辭 형태
4. 『百聯抄解』평측자의 교육용 1800자에 있어서의 장단음
5. 맺는 말

<국문초록>

『百聯抄解』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金麟厚(1510-1560)가 초학자에게 한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역대의 5언절구, 7언고시, 7언절구, 7언율시 중에서 聯句 99개를 뽑아 7언율시의 함,경련으로 다듬어 언해를 붙여 간행한 책이다.

대표적인 선본인 필암서원본, 동경대본, 박은용본은 수록 순서가 다르고 필암서원본에는 제100연이 없을 뿐 같은 책임을 알 수 있다. 전거는 시대별로는 고려 6, 조선 3, 성당 3, 중당 3, 만당 6, 송 10, 원 1, 명 1연 순으로 만당과 송이 가장 많고 작가는 두보와 백거이가 각 3연으로 가장 많은데, 명작 위주라기보다는 작시법 터득 위주로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련초해』는 科詩 학습을 위한 근체시 교재이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7언율시의 근간인 평측과 압운이 맞는 함, 경련의 대우법을 익히게 할 목적이 가장 컸다. 이를 위해 措辭 구조에서 5언과 7언을 호환하며 한시 작법을 훈련하는 구성을 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백련초해』에서 쓰인 한자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보면(표3) 535자이고,

* 조선대학교

전체 1400자의 88.5%인 1239자가 교육용 한자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명들이다. 『백련초해』에서의 평자는 교육용 1800자에서 단음으로 축자는 장음으로 나타나는 상관 정도는 87.8%로, 이는 교육용 1800자를 배울 때 장단음을 구분하며 익힌 학생이면 『백련초해』의 평축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백련초해』, 필암서원본, 措辭, 평축자, 장단음, 교육용 1800자

1. 서론

『百聯抄解』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金麟厚(1510-1560)가 초학자에게 한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역대의 5언절구, 7언고시, 7언절구, 7언율시 중에서 聯句 99개를 뽑아 7언율시의 함,경련으로 다듬어 언해를 붙여 간행한 책이다.

『백련초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은용이 자신의 소장본 해제를 쓴 이래로 김봉영이 필암서원본 해제를, 김경숙이 동경대학본 해제를 썼고 신춘자는 이 셋과 가람본, 일사본을 대조하고 형성과정을 유추하는 해제를 썼다¹⁾.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처음 『百聯抄解』 송광사본을 영인·간행한 청구대

1) 박은용, 『『百聯抄解』解題』, 『국어국문학자료집』1(대구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60), 27-30쪽.
 김봉영, 『『百聯抄解』解題』, 『어문학논총』6(조선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65), 151-153쪽.
 김경숙, 『『百聯抄解(동경대학본)』해제』, 『국문학연구』4(효성여대 국어국문학 연구실, 1973), 121-124쪽.
 신춘자, 『百聯抄解』(동국문화사, 1980), 4-16쪽.

학에서²⁾ 시작하였는데, 심재완은 일본의 한문본 『百聯抄』 石田元季本, 筭五百里본을 소개하고 蘇軾과 杜牧 등 전거를 추적하였다³⁾. 이어 서재극, 장석련, 최범훈의 연구가 있었고 정익섭, 손희하, 음재희의 연구가 있었다⁴⁾.

근래의 연구로는 석주연, 이관식, 김무봉, 안봄, 조창록의 연구가 있었는데⁵⁾, 언해 부분에 대한 서지학과 국어학 쪽의 연구가 활발하였고, 정작 『백련초해』의 편집자가 의도하였던 한시 작법 교육 쪽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 아래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용 기초한자 1800

2) 신춘자, 8쪽. “靑丘大學에서 1957년 국어국문학 연구 자료집 第四輯으로 影印·刊行한 바 있다.”

3) 심재완, 『『百聯抄解』연구』, 『청구대학논문집』8(청구대학, 1965), 23-38쪽.

4) 서재극, 『『百聯抄解(동경대본)』의 釋에 대하여』, 『한국학논집』1(계명대학, 1973), 107-123쪽.

장석련, 『『百聯抄解』이본고』, 『청주대논문집』12(청주대학교, 1979), 11-45쪽.

최범훈, 『『백련초해(동경대본)』의 국어학적 연구』, 『경기대학논문집(인문과학편)』13, 경기대학교, 1983, 9-38쪽.

丁益燮, 『『百聯抄解』攷』, 『연민이가원선생칠지송수기념논총』(정음사, 1987), 103-119쪽.

-----, 『『百聯抄解』의 編纂者攷』, 『춘강유재영박사화갑기념논총』(이회문화사, 1992), 959-969쪽.

손희하, 『『百聯抄解』의 어휘 의미론적 고찰』, 『어문논집』10-11 정산정익섭박사정년기념특집(전남대 국어국문학과, 1989), 225-248쪽.

음재희, 『『백련초해』에 관한 국어학적 고찰』, 『도솔어문』8(단국대국어국문학과, 1992), 174-200쪽.

5) 석주연, 『『百聯抄解』의 異本에 관한 비교 연구』, 『규장각』22(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69-92쪽.

이관식, 『『백련초해(동경대본)』의 국어학적 고찰』, 『어원연구』2(한국어원학회), 1999, 85-122쪽.

김무봉, 『백련초해(百聯抄解) 연구(I) - 이본(異本)과 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70(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7-46쪽.

_____, 『백련초해(百聯抄解) 연구(II) - 동경대본(東京大本)의 음운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74(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7-34쪽.

안봄, 『『百聯抄解』 한시의 교육적 가치』, 『韓國言語文學』46(한국언어문학회, 2001), 85-104쪽.

曹蒼錄, 『朝鮮朝 漢詩 教育의 實際와 『百聯抄解』』, 『大東漢文學』21(대동한문학회, 2004), 337-359쪽.

자를 익힌 대학생에게 『백련초해』를 학습시키고 나아가 한시를 지을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하였다.

2. 이본과 전거

지금까지 발견된 『백련초해』 목판본 이본은 모두 일곱 종으로⁶⁾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필암서원본⁷⁾ 계열 - 가람본⁸⁾
- 동경대본⁹⁾ 계열 - 애스턴 구장본¹⁰⁾
- 박은용본¹¹⁾ 계열 - 일사본A¹²⁾, 일사본C¹³⁾

이 밖에 필사본으로 장석련본¹⁴⁾과 일사본B¹⁵⁾가 있고, 국역 없이 한시만으로 되어 있는 『百聯抄』 심재완본¹⁶⁾, 최범훈본¹⁷⁾, 송광사본¹⁸⁾ 및 일본

-
- 6) 신춘자, 9쪽에서“『百聯抄解』의 異本으로는 秀松 梁大淵 博士의 先親 梁宗熙님이 筆寫한 秀松所藏本과, 李能雨 博士가 佛蘭西 留學 時 複寫해 온 것이 있고”라고 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 7) 김봉영, 위의 책.
 - 8) 석주연, 87-89쪽.
 - 9) 김경숙, 위의 책.
 - 10) 석주연, 71-76쪽.
 - 11) 박은용, 위의 책.
 - 12) 석주연, 85-87쪽.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에 소장된 세 종의 『百聯抄解』 가운데 도서번호“일사 古 811.03-G42b - 古 811.5-B146”이다.
 - 13) 김무봉·김성주, 『역주 백련초해』(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17쪽에서“규장각C본”이라 한 위 도서번호“일사 古 811.03-G42bb”이다.
 - 14) 장석련, 위의 책.
 - 15) 석주연, 89-90쪽. 도서번호“일사 古 811.03-G42ba”이다.
 - 16) 심재완, 위의 책.
 - 17) 최범훈, 위의 책.
 - 18) 목판본, 각주2)

소장의 근위본, 견오백리본, 석전원계본¹⁹⁾이 있다.

이 일곱 이본은 수록 순서만 다를 뿐 수록 내용은 차이가 없고, 필암서원본에는 제100연이 없다.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선본은 동경대본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두 선본 필암서원본과 박은용본을 함께 하여 2013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역주 백련초해』로 간행하였다. 이 세 이본의 수록 순서를 정리한 것이 표1인데 표를 통하여 수록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책임을 알 수 있다.

목판 1매에는 책 2면이 들어가고 책 1면에는 연구 세 연(동본), 두 연(필본, 박본)이 들어가게 빈칸 없이 짜여 있다. 즉, 동본은 목판 17매, 책 34면, 1면 9칸 중 시 두 칸 언해 한 칸(2줄)으로 3연이 들어가 모두 17매×6연 = 102연 책판 가운데 머리제목, 끝 제목이 각 한 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필본과 박본은 공히 25매, 50면으로 필본은 1면 8칸 중 시 두 칸 언해 두 칸으로 두 연이 들어가 25매×4연 = 100연 책판 중 머리제목 두 칸 끝 제목 두 칸(빈 칸으로 남아 있다.)이 빠져 99연이다. 박본은 1면 6칸에 시 두 칸 언해 한 칸(2줄)으로 편성하고 첫 장과 마지막 장은 7칸으로 하여 100연과 머리제목 끝 제목을 다 넣었으니 가장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동본 제4-11 여덟 연을 필본 제8-15연으로, 박본 제5-8, 57-60연으로 편집하고 동본 제88-95 여덟 연을 필본 제36-43연으로, 박본 제88-89, 99, 90-94연으로 편집한 데서 이 이본들의 편집 방식과 간행 시기의 선후를 가늠할 수 있다.

표1. 필암서원본, 동경대본, 박은용본의 수록 순서 비교

19) 김무봉·김성주, 21-23쪽. 세 이본 모두 수록순서가『백련초해』동경대본과 일치한다. 근위본은 활자본, 견오백리본, 석전원계본은 목판본이다.

필본	동본	박본	필본	동본	박본	필본	동본	박본
1	1	1	35	65	96	69	69	73
2	2	3	36	88	88	70	70	74
3	3	4	37	89	89	71	71	75
4	12	95	38	90	99	72	40	41
5	13	2	39	91	90	73	41	42
6	14	97	40	92	91	74	42	43
7	15	98	41	93	92	75	43	44
8	4	5	42	94	93	76	56	29
9	5	6	43	95	94	77	57	30
10	6	7	44	28	80	78	58	31
11	7	8	45	29	81	79	59	32
12	8	57	46	30	82	80	48	49
13	9	58	47	31	83	81	49	50
14	10	59	48	16	21	82	50	51
15	11	60	49	17	22	83	51	52
16	72	9	50	18	23	84	20	17
17	73	10	51	19	24	85	21	18
18	74	11	52	60	61	86	22	19
19	75	12	53	61	62	87	23	20
20	24	84	54	62	63	88	52	53
21	25	85	55	63	64	89	53	54
22	26	86	56	44	45	90	54	55
23	27	87	57	45	46	91	55	56
24	76	13	58	46	47	92	80	65
25	77	14	59	47	48	93	81	66
26	78	15	60	96	25	94	82	67
27	79	16	61	97	26	95	83	68
28	32	33	62	98	27	96	36	37
29	33	34	63	99	28	97	37	38
30	34	35	64	84	76	98	38	39
31	35	36	65	85	77	99	39	40
32	66	69	66	86	78		100	100
33	67	70	67	87	79	*필본:필암서원본, 동본:동경대본, 박본:박은용본		
34	64	71	68	68	72			

이 연구에서는 김봉영이 1965.6.6.에 등사한 조선대학교 소장 필암서원본(등록번호 16690)을 연구 저본으로 하고 제100연만 동경대본을 인용하였다. 즉 필암서원본 제1-99연 + 동경대본 제100연이 이 연구에서의 일련번호이다.

『백련초해』의 전거를 살펴보면²⁰⁾, 이 연구에서 찾아낸 33개 가운데 시대별로는 고려 6, 조선 3, 성당 3, 중당 3, 만당 6, 송 10, 원 1, 명 1연 순으로 만당과 송이 가장 많고 작가는 두보와 백거이가 각 3연으로 명작 위주라기보다는 작시법 터득 위주로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백련초해』의 전거

연	지은이	출전	해당 연구
1	老儒	『破閑集』 하권 48쪽	韻(平起式)이나 頸(仄起式)
2	白居易	『白氏長慶集』 권19 「西省對花憶忠州東坡新花樹因寄題東樓」	경
5	秋適	『明心寶鑑(초간본)』 「省心篇」	7언시의 전,결
6	白居易	『白氏長慶集』 권20 「江樓夕望招客」	경
7	杜荀鶴	『全唐詩』 20책 7950쪽 「旅中臥病」	합
8	陳著	『本堂集』 권1 「續姪溥賞醪勸酒二首」 其一	5언절구 기,승
9	柳雲	『思齋集』 권4 「撫言」	1과 같음
24	李奎報	『東文選』 권14 「寓居天龍寺」	경
29	李賢輔	『龔巖集』 권3 歌詞 「漁父歌」 9장 중 제2장	7언시의 기,승
30	黃庭堅	『黃庭堅詩選』 226-7쪽 「觀化十五首」 其十一	7언절구의 기,승
36	魏野	『鉅鹿東觀集』 권6 「書逸人俞太中屋壁」	5언율시의 합
37	白居易	『白氏長慶集』 권20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	경
38	許渾	『全唐詩』 16책 6107쪽 「題崔處士山居」	경
40	副考,	傳採童詩(明 嘉靖)	7언고율의 수

20) 안봄, 87-89쪽. 김무봉·김성주, 27-28쪽. 이 두 연구에서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연	지은이	출전	해당 연구
	採童		린 문답구
41	魏野	『鉅鹿東觀集』 권3 「秋霽草堂閒望」	함
43	魏慶之	『詩人玉屑』 권4 「風騷句法」	함(측기식)이 나경(평기식)
44	古林如	『古林如禪師語錄』 권2	佛家 禪語 7언고시 전,결
45	朱長文	『全唐詩』 9책 3064쪽 「望中有懷」	7언절구 전,결
46	崔集均	『益齋集』 「櫟翁稗說後集二」	함
48	朴仁範	『東文選』 권12 「江行呈張峻秀才」	경
60	胡宿	『全唐詩』 21책 8368쪽 「次韻和朱況雨中之什」	함
64	杜甫	『杜詩詳註』 5책 2101쪽 「瑞鷓鴣」(『草堂詩話』辯杜詩)	함
65	許渾	『全唐詩』 16책 6090쪽 「晚自朝臺津至韋隱居郊園」	함
66	王安石	『王安石詩選』 111쪽 「次韻平甫金山會宿寄親友」	경
6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2 21쪽 「訪足庵聆首座」	함
74	杜甫	『杜詩詳註』 2책 791쪽 「絕句漫興九首」其七	7언절구 기,승
79	蘇軾	『蘇東坡全集』 上2 85쪽 「病中遊祖塔院」	함
80	杜甫	『杜詩詳註』 3책 1088-9쪽 「滕王亭子二首」其一	함
90	杜牧	『全唐詩』 16책 5964쪽 「題宣州開元寺水閣閣下宛溪夾溪居人」	함
93	金時習	『梅月堂詩集』 권13 「和鍾陵山居詩二十四首」其二十	함
96	古德	『五燈會元』 권16	佛家 禪語 7언고시 기,승
97	趙嘏	『全唐詩』 17책 6347쪽 「長安晚秋」	함
98	劉滄	『全唐詩』 18책 6803쪽 「咸陽懷古」	경

3. 措辭 형태

『백련초해』는 科詩 학습을 위한 근체시 교재²¹⁾이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평측과 압운이 맞는 함, 경련의 대우법을 익히게 할 목적이 가장 컸다. 함, 경련의 대우를 잘 맞추는 것이 좋은 7언율시를 지을 수 있는 첩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훈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抽句』²²⁾의 두 구에 각 두 자씩을 더하여 한 연으로 만드는 것이다. 『백련초해』에서 이 방법이 쓰인 연은 모두 17언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독자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평측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측음은 굵은 글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첫째, □□××□□□형으로 앞 구 제2자가 측성으로 시작하는 花笑檻前聲未聽, 鳥啼林下淚難看[1]²³⁾, 花落庭前憐不掃, 月明窗外愛無眠[13], 山外有山山不盡, 路中多路路無窮[20], 竹筍初生黃犢角, 蕨芽已作小兒拳[30], 山影入門推不出, 月光鋪地掃還生[32], 白鷺下田千點雪, 黃鶯上樹一枝金[44], 松作洞門迎客蓋, 月爲山室讀書燈[58]과 평성으로 시작하는 花紅小院黃蜂鬧, 草綠長堤白馬嘶[15], 耕田野叟埋春色, 汲水山僧斗月光[25], 風驅江上群飛雁, 月送天涯獨去舟[48]가 있다.

이 경우 밑줄 친 두 자가 더해지기 전의 5언시는 완전한 근체시 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밑줄 친 두 자를 빼고 보면 시의 내용상 의미는 통하지만 5언 근체시의 기본 운율법인 구의 제2자와 제4자의 평측을 달리해야 하는 원칙(二四不同)을 지키지 않고 있다. [44]의 뒤 구 평성‘枝’가『추구』에는 측성‘片’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전거를 밝혔듯이 이 연은 7언시가 原詩이다. 이 조사 방식에 있어서 7언시의 제2자와 제6자의 평측을 같

21) 曹蒼錄, 355쪽.

22) “推句”라고도 쓰고 있는데, 공히 시구를 뽑아(抽) 모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千字文』이나 『明心寶鑑』처럼 정해진 내용인 것이 아니라 『抽句』는 가르치는 사람이 임의로 5언시를 뽑아 편집하여 썼다. 그래서 그 내용과 분량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23) 『백련초해』 일련번호 제1을 이렇게 표기한다.

게 해야 하는 원칙(二六對)은 5언시의 二四不同과 모순되기 때문에 측성으로 바꾸어 5언시의 二四不同을 맞춘 것이다. 여기에서 이 구들은 거꾸로 『백련초해』에서 뽑아 『추구』에 편집된 구들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구』가 『백련초해』를 가르치기 위한 하위 연동 선수 교육과정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이 평측, 압운, 대우를 익히기에 가장 좋아 가장 많다.

둘째, ××□□□□형으로 앞 구 제2자가 측성으로 시작하는 山上白雲 山上盖, 水中明月水中珠[21]와 평성으로 시작하는 花含春意無分別, 物感人情有淺深[2], 池邊洗硯漁吞墨, 松下烹茶鶴避煙[36]이 있다. 이 조사 방식은 5언 근체시에 앞 두 자만 보태 7언 근체시로 바꾸는 형태로 압운에 있어 서로 모순이 없다. 학생은 5언시의 제4자가 7언시의 제6자가 됨을 인지하고 제2자를 같은 평측으로 압운하기만 하면 된다.

셋째, □××□□□□형으로 앞 두 경우보다 어려운 방식으로 앞 구와 뒤 구의 제2, 3자가 의미와 평측이 동시에 對偶를 이루도록 措辭하여야 한다. 風射破窓燈易滅, 月穿疎屋夢難成[7], 花衰必有重開日, 人老曾無更少年[8], 柳爲翠幕鶯爲客, 花作紅房蝶作郎[42]이 있다.

넷째, □×□×□□□□형으로 앞 구의 제2, 4자가 구 안에서는 二四不同의 평측이, 뒤 구의 제2, 4자와는 의미와 평측이 대우를 이루도록 조사한 방식으로 花間蝶舞紛紛雪, 柳上鶯飛片片金[11]이 그러하다.

7언율시의 함, 경련 앞 구의 제2, 4, 6자는 二四不同, 二六對의 평측을 지켜 조사하고 뒤 구의 제2, 4, 6자는 앞 구와 의미가 대우가 되고 평측이 반대가 되게 조사하는데, 이를 反法이라고 한다.²⁴⁾ 뒤 구의 마지막 자가 脚韻으로 수련 앞, 뒤 구 및 함, 경, 미련 뒤 구 각 각운과 호응하며 시 전체를 압운하게 된다. 이를 알기 쉽게 표지화해보면 앞 구 제2자가 측성인 경우(仄起聯)

● ● ● ○ ○ ● ●

24) 하영섭·황필홍, 『漢詩作法的 定石』(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281쪽.

● ○ ● ● ● ○ ◎

가 되고 앞 구 제2자가 평성인 경우(平起聯)

● ○ ● ● ○ ○ ●

● ● ○ ○ ● ● ◎

이 된다.²⁵⁾

7언율사에서 측기련은 수련 앞 구의 제2자가 측성으로 시작되는 측기식의 경련이나 평기식의 함련이 되고 평기련은 측기식의 함련이나 평기식의 경련이 되는데, 『백련초해』는 측기련이 52연, 평기련이 47연, 측기식 수련 1연으로 짜여 있다.

네 연을 호응하는 다섯 각운이 韻字로 7언율사에 쓰이는 운목에는 상평성 15운과 하평성 15운이 있는데, 『백련초해』에 쓰인 운목을 살펴보면 陽운 13연, 庚·先운 11연씩, 侵운 7연, 眞·尤운 5연씩, 支·元·蒸·東운 4연씩, 文·微·鹽·靑·虞·冬운 3연씩, 寒·灰·刪·蕭운 2연씩, 魚·齊·麻·歌·佳운이 1연씩이다.²⁶⁾ 포괄 운자가 많은 寬韻을 많이 쓰고 상평성 江운, 하평성 肴·豪·覃·咸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中韻‘豪’외에는 모두 포괄 운자가 적어 압운이 힘든 窄韻(覃)이나 險韻(江, 肴, 咸)이기²⁷⁾ 때문이다.

4. 『百聯抄解』 평측자의 교육용 1800자에 있어서의 장단음

『백련초해』에서 쓰인 한자는 535자로 3회 이상 쓰인 146자를 정리해 보면, 花(33) 月(31) 山(28) 春(18) 竹(17) 風(16) 白(15) 紅(14) 松 葉 人(13) 柳 無 雲 前(12) 落 上 水 鶯 雨 靑(11) 色(10) 不 聲(9) 生 有 一 中 下 黃(8) 開 金 簾 綠 裏 雪 影 玉 長 珠(7) 客 去 光 帶 來 門 樹 垂 魚 庭 鳥 千 天 含 香(6) 間 江 老 林 明 碧 飛 深 雁 煙 院 日 作 點

25) ●: 평측 불문, ○: 평성, ●: 측성, ◎:각운

26) 曹蒼錄, 353-355쪽.

27) 王力, 『漢詩韻律學』(上海教育出版社, 2002), 46쪽.

蝶酒窓草秋曉(5)難洞路露淚馬舞未霜笑掃修夜野鶯迎
 外容爲情啼照片檻(4)歌輕階高孤掛歸多茶燈鶯樓輪眠
 夢半邊噴絲沙石細送僧兒楊陰引入子殘枝地遲盡穿晴
 初村翠筆夏荷鶴海行畫(3)로 대부분 중학교용 한자임을 감안할
 때 시적 감흥만 있으면 한두 구는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언시, 칠언시의 기본적인 평측식만 기억하고 이에 맞게 아는
 글자들을 한 구가 뜻을 이루게 배치해 가면 되는 것이다.

표3. 『백련초해』에 쓰인 교육용 한자의 평측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기타	
	평자	측자	평자	측자	평자	측자
가	家歌看間江開 經 耕輕驚溪鷄高 公 空關光交歸均 根 今金	角感客更去 犬見競計古 曲過口極氣 起	階孤枯狂刈驅 群窮 拳琴欺騎	閣蓋鏡 頃哭貫 掛局菊	竿褰鴉 菰嬌鈎 欵碁	澗感法 揭迺橋 捲蕨及
나	難年能	暖怒		納	濃	鬧嫩
다	多端當刀頭燈	對道獨賣動 洞斗	茶騰	斷炎踏 帶倒稻	桐	戴壽續 杜
라	郎來涼流留林	樂落良冷兩 力老路露綠 柳利里立	羅梁隣蓮 零龍樓輪 臨	亂嶺弄 淚裏	驢簾籬	鶯董蓼
마	眠明無聞門	馬滿萬望每 面暮木舞茂 墨物尾未美	埋微眉迷	幕滅夢	薇	
바	房浮分非飛	半發白別父 不	排翻邊屏 峯蜂紛崩 肥	泊伴返 壁碧鳳 拂	噴	箔畔泛 柄迸鬢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기타	
	평자	측자	평자	측자	평자	측자
사	絲山三相霜生 書 西仙先成星聲 松 修愁時詩新神 身 心深	寺射上想色 石選雪洗細 小少笑素送 數樹水室十	斜沙沫燒 疏垂脣僧 尋雙	似塞掃 鎖衰熟 濕	篩衫巢 梳嘶柴	麝傘慘 插扇嘯 碎叟岫 袖笥瑟
아	兒顏漁魚言如 餘煙 迎容雲爲猶陰 依衣 人因	我眼暗愛夜野 語葉屋玉外友 遇雨遠月有飲 意已易一日 入	芽涯楊腰 幽爨	岳岸雁 躍燕軟 影映泳 緩畏院 慰乳潤 翼	鶯媚纓 饒猿	惹硯塢 穩梳繞 牖倚蟻
자	將長裁低前田 錢庭 情除題碑鐘中 重會 枝知	子字自在 絕靜早鳥坐 晝酒竹地盡	殘粧亭征 堤珠舟池 遲	紫野帳 滴殿轉 渾點蝶 照	薔葩帝 蹤珠樽 塵	蘸笛轉 釣趁
차	窓千天泉晴清 靑初 村推秋春蟲吹 針	着唱處淺聽草 出	侵	醉枕	遮穿蕉	躑躅獨 翠
타			彈	態甯透	拖吞苔	榻
과	波平風	破片閉必筆		被避	烹靛鋪	旃犬
하	寒霖行鄉香形 紅花 黃	下夏海解向戶 火畫活後黑興	荷含軒絃 螢禾還橫	鶴巷曉	鬢篁迴 痕	檻仗喚 滑
535	134(505)	146(455)	71(133)	74(146)	48(84)	62(77)
	10(21)	24(44)	6(7)	12(24)	2(6)	10(14)

『백련초해』에 쓰인 535자 가운데 52.3%인 280(960자/전체1400자)자가 중학교용이고 27.1%인 145(279/1400)자가 고등학교용으로 79.4% 425자, 전체 1400자의 88.5%인 1239자가 교육용 한자이다.²⁸⁾

『백련초해』에서 평자로 쓰인 한자는 오늘날 대부분 단음으로 측자는 장음으로 쓰이는데²⁹⁾,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중학교용 평자 10/134(7.5%) 측자 24/146(16.4%), 고등학교용 평자 6/71(8.5%) 측자 12/74(16.2%) 전체는 52/425(12.2%)이다. 해석건대 교육용 1800자의 장단음만 제대로 알면 『백련초해』의 평측자 7/10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과거제가 폐지된 뒤로 한시 인구는 급감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학문의 영향으로 더욱 위축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약 200명이 한시를 짓고 있다³⁰⁾. 한시는 화석화된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아가 한자문화권(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공동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한시 평측자의 이해는 우리의 바른 국어 생활에도 도움을 준다. 예컨대 先物[선물]과 膳物[선:물], 先行[선행]과 善行[선:행], 時計[시계]와 視界[시:계], 私物[사물]과 四物[사:물]은 위에 제시한 평측자, 장단음의 율에 정확히 부합한다.

28) 『백련초해』에 쓰인 한자 총수는 $14 \times 100 = 1400$ 자이다. 거듭 쓰인 것을 빼고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535자가 남는다. 다시 말해 535자가 운용되어 100연 1400자의 시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280(960자/전체1400자)자”란 535자 가운데 280자를 말하고 960자는 거듭 쓰인 수를 포함한 자수이다.

2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漢韓大字典』(민중서림, 2016), 『漢韓辭典』(교학사, 2013).

30) 하영섭·김대현, 「한시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 『주간조선』2349호(2015.3.23.), 76쪽.

4. 맺는 말

『百聯抄解』는 조선 중기, 초학자에게 한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역대의 한시 중에서 聯句를 뽑아 7언율시의 함,경련으로 다듬어 언해를 붙여 펴낸 책이다. 이를 살펴본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표적인 선본인 필암서원본, 동경대본, 박은용본은 수록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책임을 알 수 있었고, 전거는 시대별 고려 6, 조선 3, 당 12, 송 10, 원명 2연, 작가는 두보와 백거이가 많았다.

둘째, 措辭 구조에서 5언과 7언을 호환하며 한시 작법을 훈련하는 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 사용 한자의 88.5%가 교육용 한자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명들이고 『백련초해』에서의 평자가 교육용 한자에서 단음으로 측자는 장음으로 나타나는 상관 정도는 87.8%로, 이는 교육용 1800자를 배울 때 장단음을 구분하며 익힌 학생이면 『백련초해』의 평측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원전역주서류

金時習, 『梅月堂詩集』

金麟厚, 『百聯抄解』(河西全集), 필암서원, 1993.

金正國, 『思齋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조선고서간행회, 1913.

李仁老, 『破閑集』, 조선고서간행회, 1911.

李齊賢, 『益齋集』

李賢輔, 『龔巖集』

秋適, 『明心寶鑑(초간본)』

『東文選』

仇兆鰲 注, 『杜詩詳註』, 中華書局, 1989.

白居易, 『白氏長慶集』

蘇軾, 『蘇東坡全集』, 中華書店, 1996.

魏慶之, 『詩人玉屑』

魏野, 『鉅鹿東觀集』

陳著, 『本堂集』

劉逸生 編, 『黃庭堅詩選』, 三聯書店, 1983.

劉逸生 編, 『王安石詩選』, 三聯書店, 1983.

『古林如禪師語錄』

『御選歷代詩餘』

『五燈會元』

『全唐詩』, 中華書局, 1990.

2. 연구논저류

김경숙, 「『百聯抄解(동경대학본)』해제」, 『국문학연구』4, 효성여대 국어
국문학연구실, 1973, 121-124쪽.

- 김무봉·김성주, 『역주 백련초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 김무봉, 「백련초해(百聯抄解) 연구(I) - 이본(異本)과 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7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7-46쪽.
- _____, 「백련초해(百聯抄解) 연구(II) - 동경대본(東京大本)의 음운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7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7-34쪽.
- 김봉영, 「『百聯抄解』解題」, 『어문학논총』6, 조선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65, 151-153쪽.
- 김용숙, 『百聯抄解』, 필암서원, 2011.
- 김태성, 「현대 한국한자음의 長短音 표현과 中古音 四聲과의 관계」, 『중국학연구』14, 중국학연구회, 1998, 209-229쪽.
- 박은용, 「『百聯抄解』解題」, 『국어국문학자료집』1, 대구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60, 27-30쪽.
- 서재극, 「『百聯抄解(동경대본)』의 釋에 대하여」, 『한국학논집』1, 계명대학, 1973, 107-123쪽.
- 석주연, 「『百聯抄解』의 異本에 관한 비교 연구」, 『규장각』22,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69-92쪽.
- 손희하, 「『百聯抄解』의 어휘 의미론적 고찰」, 『어문논집』10-11, 정산정익섭박사정년기념특집,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1989, 225-248쪽.
- 신춘자, 『百聯抄解』, 동국문화사, 1980, 4-16쪽.
- 심재완, 「『百聯抄解』연구」, 『청구대학논문집』8, 청구대학, 1965, 23-38쪽.
- 안봄, 「『百聯抄解』한시의 교육적 가치」, 『韓國言語文學』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85-104쪽.
- 음재희, 「『백련초해』에 관한 국어학적 고찰」, 『도솔어문』8, 단국대국어국문학과, 1992, 174-200쪽.
- 이관식, 「『백련초해(동경대본)』의 국어학적 고찰」, 『어원연구』2, 한국어

- 원학회, 1999, 85-122쪽.
- 장석련, 『『百聯抄解』이본고』, 『청주대논문집』12, 청주대학교, 1979, 11-45쪽.
- 丁益燮, 『『百聯抄解』攷』, 『연민이가원선생칠지송수기념논총』, 정음사, 1987, 103-119쪽.
- _____, 『『百聯抄解』의 編纂者攷』, 『춘강유재영박사화갑기념논총』, 이회문화사, 1992, 959-969쪽.
- _____, 『湖南歌壇研究』, 민문고, 1989, 205쪽.
- 曹蒼錄, 「朝鮮朝 漢詩 教育의 實際와『百聯抄解』」, 『大東漢文學』21, 대동한문학회, 2004, 337-359쪽.
- 최범훈, 「『백련초해(동경대본)』의 국어학적 연구」, 『경기대학논문집(인문과학편)』13, 경기대학교, 1983, 9-38쪽.
- 하영섭·황필홍, 『漢詩作法의 定石』,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281쪽.
-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2016.
- 『漢韓辭典』, 교학사, 2013.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한국고전번역원, 백련초해 해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바이두 백과(<http://baike.baidu.com>.)

<Abstract>

Long and Short Vowels in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Secondary Education of Pyongchukja in 『Baekryonchohae』

Kim, Young-kook

Kim In-Whoo (1510–1560), a civil service minister and scholar of the early Joseon Dynasty, compiled 99 Korean and Chinese poems which were selected from quatrain with 5 words to each line, free verse with 7 words to each line, quatrain with 7 words to each line and 4 stanza with 7 words to each line into 『Baekryonchohae』 along with Korean translation which was used to teach Chinese poetry.

Although Pilamseowonbon, Dongkyungdaebon and Parkeunyongbon, good representative books, had different collection orders and Pilamseowonbon does not contain stanza No. 100, they are the same books.

With regard to the sources, 6 poems were from Goryeo, 3 from Joseon, 3 from Sheng Tang, 3 from Zhong Tang, 6 from Wan Tang, 10 from Song, 1 from Yuan and 1 from Ming. Three stanzas were from Du Fu and Bai Juyi respectively. This book was compiled according to how to write poetry, not according to how good the poems were. As 『Baekryonchohae』 was a textbook for Recent poetry, its important aim was to teach balance in Pyongcheuk and Rhyming, and antithesis. For

that aim, this book was composed of training examples on how to write Chinese poetry through compatibility between verses with 5 words to each line and verses with 7.

535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in 『Baekryonchohae』 and 1239 characters, or 88.5% of Chinese characters used, were easily accessible for education. In 『Baekryonchohae』, the correlation between Pyungja, which are short vowels in the 1800 characters for Education, and Cheukja, which were long vowels, was 87.8%. If students are able to differentiate the long from the short vowels in learning the 1800 characters for education, they could understand Pyungchukja in 『Baekryonchohae』 easily.

Key words : 『Baekryonchohae』, Pilamseowonbon, wording, Pyongchukja, long and short vowels, 1800 chinese characters for secondary education.

투고일 : 2016년 7월 15일, 심사 : 8월 8일 ~ 8월 18일, 게재확정 : 8월 22일